

## 기획특집

현장에 선 여성학자



### ■ 과테말라에서 마야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최진숙

필자가 과테말라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97년 12월 말이었다. 라틴아메리카를 방문한 것은 그게 처음은 아니었다. 과테말라로 가기 전에는 필자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뉴욕주립대 인류학과의 현장학교(field schoo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니카라과에서 한 학기를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토록 꿈꾸어오던 그 ‘먼 곳’. 나는 한국에서 가급적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류학자의 꿈을 펼치고 싶었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 그 중에서도 필자의 연구 주제에 적합한 과테말라를 현지(field)로 선택했다.

처음 도착한 과테말라에서 필자는 소위 자원봉사를 통해 책에서만 읽던 마야 원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전통 의상을 입고 마야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인류학적 연구 대상으로서는 훌륭했다. 이렇게 책에서만 본 사람들, 특히 과테말라의 비극적 현대사 속에서 희생자였고 최근에는 원주민 운동의 주역인 사람들을 드디

어 만나게 된 후, 1998년 여름부터 매해 여름 과테말라를 방문하였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류학적 장기 현지조사를 시작하면서 필자는 연구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학계에서 떠들썩한 마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길이였다. 이 글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하여 필자 자신이 외국인, 인류학자, 그리고 거의 내부인으로서 현지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 경험을 회고해보고 끝으로 현지에서 만난 마야인의 중층적 농담을 소개함으로써 마야 원주민들이 이해하는 마야 정체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과테말라에서 외국인의 위상 그리고 아시아인

여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과테말라에서도 외국인들은 관광의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흔히 선교사 혹은 NGO,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미국인이란 ‘당연히’ 선교의 목적으로, 그리고 유럽인이란 NGO 혹은 국제기구에서 파견되어 나온 사람들로 본다. 그렇다면 아시아인들이란 어떨까? 아시아인들의 방문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지만, 장기 체류하는 이들은 한국인 사업가들처럼 마킬라도라인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한 유럽 학자는 과테말라 수도에서 머물면서 스페인어를 배울 때 이를 반영하는 외국인들의 구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선교사, NGO 혹은 국제기구, 아니면 마킬라. 그런데 스페인어를 배우는 사람들 중 여성은 주로 아시아인들이데 특히 한국인 마킬라도라 사장님이나 매니저의 부인들.

필자의 경우에는 위에 나열한 외국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아

시아인 인류학자였다. 그러다 보니 한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었던 것이다. 모모스테낭고라는 마을 사람들은 아시아인의 이미지를 오래된 홍콩 무술 영화에서 배우들의 이미지와 동일시하곤 했다. 과테말라에서는 아직도 이소룡 무술영화를 즐겨



칼도(caldo)를 만들도 있는 인류학자의 모습. 칼도란 각종 야채 및 소고기를 넣고 푹 끓인 국인데 보통 잔치 때 타말과 같이 먹는다.

본다. 매주 시장서는 날이면 한 쪽에 작은 천막을 치고 작은 TV 화면으로 무술영화를 보여주는 장사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이 시간을 즐기곤 한다. “무술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대개 무술영화에서 본 배우들은 남자들이었을 텐데도 나를 보면 무술을 할 수 있는가 묻는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못할 수가 있어?’하는 식으로 의아해 하는 모습을 보고는 한 번 낫선 곳에서 해롭지 않은 장난이나 쳐보자는 생각에서 결국 ‘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여 영어를 가르치곤 했던 초등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9~11세 남학생들을 모아 놓고는 태권도 연습을 시켰다.

“오늘은 발차기부터 시작한다. 알았나?” 아이들은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필자를 주의 깊게 보고 따라했다. 나는 앞으로 차기, 옆으로 차기 등의 시범을 보여주었다. 나는 현지조사 전에 킥복싱을 조금 배운 적이 있어 이걸 조금 자신 있었다.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하다 넘어지고는 대굴대굴 구르며 좋아하곤 했다. 이렇게 아이들을 감동시키기 쉬울 줄이야. 웬지 아시아인을 대표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한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저 잠깐 동안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태권도를 배워놓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 라칸 치흐

“지나<sup>1)</sup>, 오늘은 뭐해?” “뭐, 그냥 여기저기 가보는 거지 뭐” “하하 꼭 라칸 치흐(raqan tzij)나 마찬가지로네” “그게 뭘데?” “꼭 길거리의 개처럼 여기 저기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키체 마야어로 라칸 치흐는 우리말로 옮긴다면 ‘개 다리’이다. 조금은 육설에 가까울지도 모르는 동물 명칭을 썼다는 점이 있지만, 비유가 그럴 듯하여 더 물어 보았다. 현지에서 만난 친구 마르타는 내가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않고 돌아다닌다면서 꼭 개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면 ‘개 다리’라고 부른 것이다. 처음엔 조금 이상한 표현인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만큼 현지조사를 하는 인류학자를 잘 묘사한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으려는 인류학자. 어찌 보면 마치 스파이 짓을 하고 다니는 듯하기도 하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얼마나 돌아다녔기에 그랬을까.

나는 그저 외국인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초등학교에서, 야학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작은 병원에서 자원 봉사를 했고, 생일잔치,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새벽부터 마야 종교 의식에도 쫓아다녔다.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이내 유명해졌다. 이 작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아시아 여성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었

1) 스페인어 사용자가 필자의 이름 ‘진숙’을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국 현지에서는 내 이름을 ‘지나’라 부르라고 했다. 스페인어에는 우리말의 ‘ㅈ’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 모모스테낭고인과 함께 살기

본격적인 현지 조사 10개월 동안(2000년 8월~2001년 6월)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자취하지 않고 하숙을 했기 때문이지만, 이외에도 마을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병원장과는 필자의 지도교수와 의 친분 때문에 알게 되었고, 일단 이 마을에서 현지조사를 할 테니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갑자기 “그럼, 우리 병원에서 자원봉사라도 하시죠?”하는 원장에게 영겁결에 예스를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도 이 마을에 외지인으로서 머무는 이상 뭔가 내가 공동체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학교 등에서의 자원봉사 외에도 이 병원에서의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자원봉사를 하였다. 첫날 거기서 일하는 간호사 및 청소부 등 다른 직원들과 인사를 하였다. 간호사의 이름은 마르타였고 내 나이 또래 마야 여성이었는데, 아주 성격이 활발하고 나에게 잘해주었다. 마르타는 “그럼 의사 가운을 입어야죠.”하면서 가운을 건네주었다. “네?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고 기왕에 하려면 내가 좀 가르쳐 줄 테니 간호하는 것도 배우고.” 나는 그저 참여 관찰의 일환으로서 벽의 기둥처럼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서있는 정도의 역할을 기대했으나 이걸 그 이상이었다. 마르타는 내가 의학과는 전혀 무관한 공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나에게 독트라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필자

(doctora)라고, 반은 장난스럽게 의사 역할을 주었다. 아마도 병원장이 나를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의사가운을 입고 내가 한 일은 고작해야 가제를 차곡차곡 접어놓는 단순한 노동이었다. 적어도 불법

의료 행위를 하지는 않는 것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르타는 나에게 오렌지와 주사를 주면서 주사 놓는 법을 배우라고 하였다. 나는 처음에는 재미로 오렌지에 주사 바늘을 찌러 넣는 것을 배웠고, 마르타에게 근육 주사 놓는 위치까지 배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환자가 있는 방으로 부르더니, 옆드려 있는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라는 것이었다. “내가? 정말? 어떻게?” 거기서는 마르타가 보스였다. 나는 큰 맘 먹고 주사를 놓았고,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심지어 원정 간호를 하러 산골에도 따라가서 주사를 놓았고, 내게 주사를 맞는 환자들에게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는다”는 칭찬도 받았다. 이렇게 간호사 자격증도 없는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런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니. 위에서 기술한 무술과 마찬가지로 나는 또다시 무자격의 역할 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마르타의 말처럼 나는 여기 저기 돌아다니는 인류학자였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마르타 외에 그리셀다와 레티는 파트타임으로 청소 및 빨래를 하는 직원들이었는데, 마르타를 포함하여 모두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마야원주민 여성들이었다. 보통 자기들끼리는 키체어로 대화

를 나누지만 나와는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도 가끔은 장난스럽게 내게 키체어로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그게 바로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자 콘비비오(convivio)를 한다고 간식거리를 사들고 서로 작은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생일잔치도 서로 해주었고, 그녀들은 나를 대단한 귀빈으로 여겨서 집에 맛있는 것을 장만했을 때는 나를 초대하려고 하였다. 모두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남과 나누어 먹으려고 할 때 마다 눈물이 나게 고마웠다.

필자가 학부생일 때 인류학 현지조사 수업을 들으면서 당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낮선 사람과 친해지려면 같이 먹어야 한다. 그들이 주는 음식을 넓적 받아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굉장히 당연한 이론이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는 음식마다 넓죽 받아먹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인류학자이다 보니 이것저것 다 먹게 되었다. 옥수수 재료를 주식으로 하는 곳에서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 좀 다양하게 먹지 못해서 탈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만든 도톰한 토르티야와 타말이 그리도 맛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저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상을 받는 것 같아 흐뭇했다.

## 마야를 규정하기: 인류학자를 비웃는 마야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현지조사. 그런데 이 정도에서 인류학 자랑, 내 자랑은 그만하려고 한다.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부풀리게 되는 것 같다. 이 글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필자는 내가 만난 마야 원주민들이 어떻게 마야 원주

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웃는지 그들이 내게 들려준 농담을 소개하려고 한다.

2001년 1월 중순 경 ‘맘의 날(Dia del mam)’<sup>2)</sup>이었다. 이 날은 붉은 실로 짜서 만든 팔찌를 하고 쌀로 만든 타말을 먹는다. 나는 병원에서 자원 봉사를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 레티가 붉은색 실로 만든 팔찌를 한 것을 보고는 물었다.

“그걸 왜 했어?”

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마야(maya)인이니까.”

그녀를 비롯하여 다른 친구들도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래, 마야야인, 마야인이야.”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순진한 초보 인류학자였기 때문에 ‘아, 이들은 자신을 ‘마야’라고 자부심을 느끼는구나.’하고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부풀려서 논문에 써서 마야인들이 얼마나 자신이 정체성에 대하여 자각하고 있는가를 주장하려 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는 적어도 마야인들도 나와 그리 다를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해가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현지 노트에만 작성해 놓고는 논문에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의 뉘앙스만 냄새 맡았다고나 할까. 왜 웃으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마야인이니까.”라고 했을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이걸 마치 평소에는 장롱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다가 갑자기 한복을 입고는 “나 진짜 한국인 같지 않아?”하는, 싱겁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단순화하는 담론에 대한 비웃음과 유사하다.

이 밖에도 원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비웃는 농담을 듣게 되었다. 나는 야학에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아브라

2) 맘(mam)이란 키체어로 ‘할아버지’ 혹은 ‘어른’이라는 뜻이다. ‘맘의 날’은 전통 마야 달력에서 새해나 마찬가지다.

함을 자주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는 개신교도였고, 결혼하여 자녀를 다섯 명 둔 사십대 초반의 남자였다. 키체어와 스페인어 모두 구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중언어 조교로 고용했는데, 그의 도움에 대해 돈 이외에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결국 그의 야학에서 스페인어는 물론 영어(물론 그냥 노래 몇 개만 가르쳐줄 뿐이었지만)를 가르치기도 하였다. 하루는 그가 내 연구 주제는 무엇이냐고 묻기에 ‘마야 언어와 스페인어가 가지는 가치, 그리고 이 두 언어와 관련하여 모모스테낭고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정도로 대충 뭉뚱그려서 나름대로 쉬운 말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모모스테낭고 사람들은 대부분 키체어를 사용하지?”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창피하니까 키체어는 사용하지 않아. 사람들이 내가 마야인 걸 알면 어떡해.”

“그럴 리가……. 거짓말이지? 왜 그렇게 생각해?”

아브라함은 대답 대신에 웃을 뿐이었다.

이제 와서 이 대화를 되돌아보니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 그는 마야라는 용어에 대하여 중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농담을 만들어낸 것 아닐까. 그는 마야인들이 전통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음을 알고 있지만, 또한 최근 마야어가 가지는 가치는 과거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달라졌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그의 농담은 메타담론이었다. 마야인이라서 부끄럽다는 과거(혹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의 담론에 대한 담론. 이러한 농담은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어’라는 언급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전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박사논문에 사례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론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모모스테낭고의 마야 원주민들은 마야의 다양한 의

미를 알고 있다. 수치, 억압, 차별 등의 의미 외에도 최근에는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위의 농담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류학자를 비롯한 많은 서구인들이 개념화하는 마야의 의미를 알고 있음을 반영한다. 구미 인류학자들 중 마야가 몇 가지 문화적 요소들로 구성된 범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마야의 종교가 아니라 개신교를 믿으면 마야인이 아니라는 의혹, 그리고 마야인들은 항상 희생자였고, 피지배자였다는 측은지심. 이러한 단순화된 담론에 일타를 가하는 마야인들. 나는 비로소 책에서 읽은 마야 문화, 관광가이드에서 보는 마야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야를 만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여러 가지로 외국인, 인류학자, 그리고 거의 내부인으로 규정되는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외부인들이 규정하는 마야에 대하여 마야인들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타문화에 대한 학술적인 경험을 넘어서 내 인생에 이 만큼 의미 있는 경험은 이제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것, 그리고 더 질문하고 더 이해하려고 할 수 있었지만 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이 아쉬움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황홀함으로 남는 기억이다.□